

# 국립광주과학관은 살아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공룡' 이야기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을 만나러 중생대로 가보는 건 어떨까.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9월 1일까지 공룡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둘러본 현장은 2014년, 2020년에 이은 세 번째 공룡전으로 이전보다 더 커지고 다채로워졌다.

다이노 월드가 열리는 기획전시실 입구에서 움직이는 티라노사우루스와 기가노토사우루스가 관람객을 반겼다. 전시실 안으로 향하면 먼저 '지구의 46억년의 드라마'가 전시된 '다이노 타임머신' 존이 나온다. 지구의 탄생 과정에서 공룡 시대 이야기가 한 눈에 펼쳐진다. 특히 이번 공룡 전시에서는 '진품'인 화석을 만날 수 있어 특별하다. 고생대와 중생대 번성했던 해양 연체동물 '암모나이트'를 미국에서 발견된 실제 화석으로 볼 수 있다. 또 모로코에서 발견된 삼엽충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기원의 퇴적구조인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실물 화석을 만날 수 있다.

타임머신 존을 지나 '다이노 뮤지엄' 존에 들어 서면 공룡 뼈가 완성되고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걸 VR을 통해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또 중생대 공룡 발자국이 전시돼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발견된 '앙키사우리푸스 발자국' 실제 화석은 직접 만져볼 수 있다. 발자국과 돌 등 실물 화석으로 다양한 생명의 발자취를 따라볼 수 있다.

진품 화석 전시 외 이번 공룡 특별전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움직이는 공룡 15여 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두컴컴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속



레고로 공룡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관람객.

## '2024 다이노 월드' 공룡특별전 공룡 실물 화석·발자국 AR 체험 살아움직이는 듯한 공룡들 인기

공룡 소리와 함께 살아움직이는 듯한 공룡 시대가 펼쳐진다. 티라노사우루스, 딜로포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등 생동감 넘치는 공룡들로 아이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다.

2023년 보성에서 발견돼 우리나라 이튿과 지명이 붙은 최초의 공룡인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와 2008년 경기도 화성에서 한국 최초로 발견된 원시 각룡류인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모형도 함께 전시됐다.



관람객들이 '2024 다이노월드'에 입장하며 공룡 전시를 즐기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관람객들은 '공룡은 하루에 얼마나 먹었을까?', '이빨과 발톱은 얼마나 강할까?' 등 공룡백과 코너를 통해 지식도 쌓는다. 지도를 통해 우리 주변의 공룡화석 산지와 실물 화석을 볼 수 있는 곳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과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탐구한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특별 강연과 각종 체험들도 마련됐다.

'다이노 파크' 존은 발자국 화석을 대면 공룡이 나타나는 '다이노 발자국 AR 체험', 레고로 만드는 공룡, 퍼즐과 그리기 등 다양한 놀이로 관람객을 이끌었다.

'다이노 랩' 존에서는 고생물학자가 되어 화석을 발굴해 보기도 하고, 직접으로 화석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3D펜을 이용해 공룡을 그리고 입체적인 공룡 모형을 출력해 나만의 공룡을 만들 수

있으며 호박화석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등 신기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개막식 날 가족과 함께 과학관을 찾은 이신혜씨는 "다섯 살 큰 아이가 공룡을 좋아해 개막하자마자 보러 왔다"며 "움직이는 공룡들이 많아 생동감이 넘쳤고, 레고로 공룡을 만드는 체험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과학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 목포자연사박물관, 국가유산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계자는 "큰 자연사박물관이 아니면 기획전시에서 진품 화석과 다양한 공룡 전시품 등을 만나기 힘들다.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쏟아 IT 정보

#### 네이버 '클럽' 크리에이터 모집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에 활동할 '클럽' 크리에이터를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클럽은 네이버가 지난해 8월 정식으로 출시한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다. 이번에 선발할 크리에이터는 2500명이고 활동 기간은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하반기 클럽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기존 10개였던 활동 분야가 25개로 다양해지고 혜택도 크게 확대됐다고 네이버가 설명했다.

매월 10개 이상의 숏폼 콘텐츠를 올린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의 활동비가 매월 지급된다. 또 네이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클럽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올해 하반기에 총 8억원 규모의 수익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내년에 클럽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 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카카오페이 첫 결제 프로모션 연장

카카오페이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1천 원 이상 첫 결제 시 1천원을 카카오페이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오는 8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장된 프로모션에서는 카카오페이머니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도 결제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결제가 아닌 경우에도 '카페이백' 혜택으로 결제 금액의 최대 3%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하지만 해도 결제 금액의 0.5%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전월 카카오페이 결제 실적을 충족하면 포인트 적립률이 2%까지 올라가고, 사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최애매장'에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총 3%가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된다. '카페이백'은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 올 1~5월 휴대전화 스팸 1억6862만79건

지난해 전수 절반 넘어서...월평균 3372만건 작년보다 36.9% ↑

올해 1~5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전년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1억6862만79건(신고 1억6858만9656건·탐지 3만42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총 2억9549만

8099건(신고 2억9488만932건·탐지 61만7167건)으로, 올해 스팸 건수가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스팸 건수는 3372만4천1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2462만4841건)보다 36.9% 급증했다.

연도별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2021년 4491만2천292건, 2022년 3877만2284건, 2023년 2억9549만8099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 /연합뉴스

## 여권 재발급 신청, 네이버·카카오에서도 한다

### 분실물 신고 등 공공 서비스 11종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공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만 할 수 있던 여권 재발급 신청과 분실물 신고 등 공공 서비스 11종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 서비스는 ▲여권 재발급 신청(KB스타뱅킹) ▲책이음 서비스(네이버·KB스타뱅킹·우리WON뱅킹) ▲분실물 신고(우리WON뱅킹·신한SOL페이) ▲병역판정검사 신청(우리WON뱅킹)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우리WON뱅킹·KB스타뱅킹) ▲학자금대

출채무자 신고(우리WON뱅킹·웰로) ▲전기차 충전기 불발 신고(카카오·T·카카오내비)이다.

또 ▲산림청 숲e랑 예약(신한SOL뱅크) ▲국립생태원 예약(신한SOL뱅크·KB스타뱅킹) ▲별점감경교육 예약(KB스타뱅킹)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는 내달 3일부터, 나머지 서비스는 1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은 이제까지 '정부24'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민간 앱에서 이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추진

가을부터 소비자들이 더 싼 알뜰폰 요금제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8월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망 사용 비용인 '도매대가'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이동통신 업계와 통신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목표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계와 음성, 데이터 등 항목별 종량제(RM) 요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직전 도매대가 인하는 2022년 12월 이뤄졌다. 당시 음성 도매대가는 1분당 6.85원으로 전년 대비 14.6% 낮아졌고 데이터는 1MB당 1.29원으로 19.8% 인하됐다.

이번 도매대가 조정은 이보다 인하 폭이 더 클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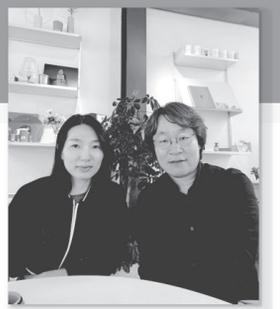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